

ChoongHyun Babies' Home Memorial Inc.

생명사랑과 인권존중의 산실



사회복지
법인 **충현원 (忠峴院)**
ChoongHyun Babies' Home Memorial Inc.



ChoongHyun Babies' Home Memorial Inc.

생명사랑과 인권존중의 산실



고아원에 보낸 엄마의 간절한 기도: 그 응답의 빛이 아기가 있는 곳으로 향함



사회복지
법인 **충현원 (忠峴院)**
ChoongHyun Babies' Home Memorial Inc.







Contents

머리말	4
- 이전의 기적은 이후의 기적을 만들어 가는 나침반! 충현원 대표이사 유혜량	
1. 충현원 소개	6
- 설립배경	
- 설립자 박순이(Park Soon Ie)	
- 발자취	
2. 양림동의 충현원	18
- 광주 근대 역사문화의 보고(寶庫) 양림동	
- 충현원을 도와준 선교사들의 이야기	
- 우월순 선교사와 충현원	
- 군목 러셀 로이드 블레이즈델 대령과 충현원	
- 충현원의 역사적 가치	
3. 충현원의 활동	34
- 전쟁고아와 해외입양 한인	
- 해외입양 한인들과 뿌리찾기 활동	
4. 충현원과 역사 문화 마을의 연관성	43
- 충현원과 연관이 있는 양림동의 선교유적과 근대문화역사	
5. 충현원의 미래적 전망	49

머리말



이전의 기적은 이후의 기적을 만들어 가는 나침반!

충현원 대표이사 **유 혜 량**

양림동 근대 문화 역사의 보고(寶庫)들을 깊이 살펴보면 기독교 선교사들은 일제 강점기에 복음의 전파와 실천, 빈민 구제 공동체와 한센병 치유 공동체 및 결핵 치유 공동체 등 사랑의 공동체 실현, 호남의 교회 및 지역 인재 양상, 대대적인 광주 전남 농촌살리기 운동 등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한글보급을 비롯한 각종 계몽 운동, 독립운동, 5·18 증언 등에도 크게 활동하였습니다. 이들과 교류가 있었던 당시 시민 지도층들, 일제탄압 아래에서 나라를 찾고자 목숨을 걸고 헌신한 독립투사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자금을 대는 모든 시민들의 화합된 헌신으로 어느덧 독립제 102주년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세계의 선진국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일찍이 도시가 형성되기 전인 1904년,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문화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고 이 문화로 인해 발전한 유일한 도시가 광주이자 그 장소가 광주의 남구에 있는 양림동입니다.

낮설고 물 설은 이국땅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양림동에 들어와 병원 및 학교 건립과 문맹 퇴치 등...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양림동은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수준 높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또한 양림동은 미국 선교부에는 1904년에 그 이름이 알려졌고 미국 기독교로부터 중보기도를 받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제중(濟衆)이라는 지번으로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 제중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충현원을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중심은 빛고을 광주요, 빛고을 광주의 정신적인 중심은 양림동이요 양림동의 정신적인 중심은 충현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충현원은 역사적 전환기 시기였던 당시의 사회문제를 치유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민족끼리 이념을 가지고 싸우고 죽이는 시대에 희생된 박순이 선생은 자기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때 발생된 젖먹이 고아들을 가족처럼 보살피기로 하나님께 맹세한 기록도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세기에 서서핑 (Elisabeth J. Shepping)이라는 외국인 선교사가 있었다면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배운 그대로 실천한 20세기의 박순이 선생의 업적을 <광주 백년사>의 저자 박선홍 선생의 강의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존적이던 여성들과 아이들의 삶이 이제는 여성이 주도하며 세상을 이어갈 소중한 후대로 귀하게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도록 밑거름이 되신 분들입니다.



박순이 선생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민족적인 암흑기의 시기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명 존중의 기적을 만들어 낸 분이었습니다. 바로 양림동 (현재 제중로84,86) 한 기슭에 자리 잡은 사회복지법인 충현원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신 분, 당시 여성으로서 그 분이 맡은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에 부거웠다고 하셨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을 외며느리인 저에게 모비에 써달라고 유언으로 남기셨던 그 순간을 회상합니다.

1995년 2월 1일 소천하신 후 10년 3개월이 지난 2005년 5월 미국 남장로교회 박물관에 Mrs. 브루스 커밍에 의하여 보고 된 '박순이와 한국 전쟁 고아들'에 대한 선교보고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 후 2009년 5월까지 충현원 설립자 박순이 선생의 발자취에 대하여 보물 찾기를 하였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신 박순이 선생에 대한 숭고한 활동의 자료를 잘 정리하여 빛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아온 기적으로 이후에 살아갈 기적을 만들어 가는 나침반으로 삼고자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산자를 통해 그 역사를 기념하고 계승하고자 합니다.

이제라도 그분들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흑암의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와 암울하던 세상을 하나의 밑알이 되어 헌신한 삶이 드러나도록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능하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빛고을 광주! 그 가운데 양림동! 양림동 (제중濟衆) 가운데 자리한 충현원 (忠峴院)이 생명 사랑과 인권 존중의 선교 정신으로 사회복지문화를 계승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위상을 드러내는 면모를 갖추게 되기까지 박순이 선생이야말로 일찍부터 고아 발생 방지를 위한 사회문제예방을 주창하신 선각자이십니다.

앞으로 박순이 선생의 정신을 충현원의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복지사업을 통하여 이루어 가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한 그분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후대를 향해 간절히 바라셨던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2021년 6월
사회복지법인충현원

1. 충현원 소개

■ 설립배경

충현원은 미국 남장로교회 소속 Robert Wilson (1908년~1926년) 선교사와 Robert Knox (1926년~1951년) 선교사와 함께 선교부에서 동역하던 어머니 박애신의 영향을 받은 박순이 (1921년~1995년) 선생에 의하여 1949년 우월순 선교사 댁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19:19)는 기독교 정신 아래 한국 전쟁 전·후에 발생한 전쟁고아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였다. 점점 고아들의 수가 늘어나자 시설과 공간이 부족하여 고아들을 안타깝게 여긴 박순이 선생이 더 많은 고아들을 안전하게 수용하기 위하여 개인 재산 5,000만 원으로 YWCA 김정현 회장으로부터 양림동 부지 (제중로 84, 86)를 구입하여 확장 운영하였다. 양림동에 있었던 미국 남장로교회 소속 13명의 선교사들도 꾸준히 의약품과 의류, 음식 등을 후원하여 주었다.



1972년부터 산업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사회문제 치료 사회복지사업에서 사회문제 예방 차원의 사회복지사업으로 아동상담소, 어린이집, 국·내외 입양기관, 거택보호 사업으로 소년 소녀 가장 학자금지원, 고아전용 아동병원, 고아를 위한 치과진료, 가출청소년 귀가를 목적으로 한 사랑의 집, 종합사회복지관을 지방에서 최초로 운영하였다. 1976년 네덜란드 아동재단 후원으로 광주 최초 어린이 공동 놀이터를 마련 광주시에 기증하였다. (현 사직도서관, 영상문화원, 오방 최흥중기념관, 유진벨선교기념관, 양림미술관 자리) 애초 고아 없는 세상을 추구한 박순이 선생 정신에 감동하여 보낸 한화 아동 재단의 기금으로 고아 전용 병원을 신축하려 했으나, 충현원 부지가 1967년부터 도시공원 계획에 묶여 있던 연유로 보내진 기금과 金 洋(설립자의 아들)의 개인 재산을 합하여 당시 같은 관할구였던 서구 금호운천길 111(쌍촌동 887-5번지)를 구입하였다. 그곳에서 지방 최초의 복지관인 호남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운영 하다가 관계 관공서와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2013년 8월 자진 폐쇄하게 되었다.

그동안 도시공원 계획에 묶여 있던 양림동 부지는 거의 방치되던 차에, 2005년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과의 국제적인 만남을 계기로 상호간 사회복지 차원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공감함에 따라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관련 자료들을 충현원에 기증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2006년 8월 14일: '1950~1945년의 미군 병사들과 한국 아이들'이라는 사진 전시회를 미국 Korean Project Coordinator의 도움으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2007년 1월 7일: 1950년 12월 20일 한국 전쟁 당시 서울의 길거리를 헤매는 고아 1,074명을 제주도로 피신시킨 미 공군 군목 러셀 블레이즈델 대령이 본인의 회고록을 한글로 번역하여 출판하기를 요청하였다.

2008년 5월 1일: 『전란과 아이들 - 그 일천 명의 아버지』 군목 러셀 블레이즈델 대령의 1주기 추모 및 회고록 출판 기념식 주관하였다. 2009년 12월 17일: 한국전쟁 고아의 아버지 (故) 군목 러셀 블레이즈델 대령 동상 제막식을 가졌다.

충현원은 2009년부터 1930년~1950년대의 충현원 개원 당시의 고아원 건물들을 복원하여, 선교 사회복지 기념관, 한국 전쟁 체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사진 전시관의 자료들과 충현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을 활용할 것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충현원 유지관리에 고전 중).

한국 전쟁 이후 반세기가 이르는 동안 해외로 입양된 한국 고아들의 수는 20만이 넘는다.

그들은 해외에서 성장하여 청장년이 되었지만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에 충현원의 체험을 통하여 그들이 모국을 방문하여 잃어버린 핏줄과 근원을 알게 하며, 잃어버린 뿌리를 되찾고 입양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하여 미래의 세계를 향한 한국의 자녀로써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충현원은 생명존중의 텃자리로서 명실상부한 동방산실(東方産室) 모심향(母心鄉)으로 20만 해외입양 한인들의 친정집 역할을 할 것이다.

■ 설립자 박순이 (Park Soon Ie)

– 미국 남장로교 선교박물관에 소개된 내용 –



박순이(1948년경)

A young widow raises 45 orphans as her own children in Gwangju, Korea. Park Soon Ie had been raised on the Presbyterian mission compound in Gwangju. Her mother, Mrs. Park Ae Sin was a seamstress for two missionary families: Dr. Robert Manton & Bess Wilson (1921–1926) and Rev. Robert & Maie Knox (1926–1940). She was an accomplished pianist, and married Saing–Ok Kim in 1944, an accomplished singer and a music teacher in the Mokpo Middle School. He later taught at the Soonchun Girls' Middle School. He was executed during the 1948 Soonchun–Yosu cultural clash

between democracy and communist factions in 1948. After her husband was killed, Mrs. Park Soon Ie, now a young Korean widow with two children prayed, "What am I to do, Lord?"

A missionary family was returning to the U.S. in 1948 and invited her to go with them. She prayed many days for the Lord to show her what to do. The Lord did: help the abandoned, starving, and diseased children on the streets of Gwangju. Nearly all Presbyterian missionaries left Korea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Mrs. Park continued the rescue and care for children before, during and after that war. By 1952 her children were the beginning of the Choong Hyun Babies' Home at the Presbyterian mission compound in Gwangju. After the Armistice in July 1953 the missionaries returned, and by 1955 she had 120 newborn–to–age–five children she was caring for. She realized she had reached her limit, but said at their baptism that she would raise them all as her own children and to be followers of Jesus Christ. How could she care for 120 children and more by herself? She needed a miracle.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the missionaries assisted her with medical and dental care, funds, food, clothing, gifts, and by demonstrating the love of Jesus.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the U.S. military assisted her with food, clothing, medicine, funds, presents, visits filled with love and laughter, and Christmas and Easter parties.

U.S. men and women in the military had to be taught to use a gun to kill another person. They did not have to be taught how to give comfort and aid to a lonely, starving, dying, diseased child. The Christian ethic of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 least of these brothers and sisters of mine, you did for me," (Matthew 25:40, NIV) is pervasive in U.S. culture. U.S. military rescued over 10,000 children and were supporting 80% of the 50,935 children in 429 approved orphanages in June 1954.

The six missionary families who supported her and her children were Dr. Robert Manton & Bess Wilson, Dr. Herb & Page Codington, Rev. Bruce & Virginia Cumming, Rev. Robert & Maie Knox, Miss Florence Root and Dr. Dick & Ruth Nieuwma. She learned from them what to do as a Christian. She raised happy children in her orphanage. Missionary Virginia Cumming wrote, "We heard the laughter of angels all the time."



As Korea became more developed, Mrs. Park Soon Ie with foreseeing intelligence shifted from orphanage to prevention of children being abandoned. There she started a child consultation center, a shelter for runaway youth, a day care center, and a hospital for all orphages in Gwangju and Jeolla-do.

In 1979, Mrs. Park Soon Ie wrote, "The Korean War orphans... suffered both from mental anguish and physical pain. I am a woman, a widow, and I am weak. This work was beyond my endurance. "However, I developed over the past 31 years this multifaceted welfare work based on the teaching by Jesus in John 12:24, "Unless a kernel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it remains only a single seed. But if it dies, it produces many seeds."

Mrs. Park Soon Ie passed away on February 1, 1995. Her daughter-in-law, Rev. HaeRyang Yoo Kim, succeeded her as Executive Director of the Choong Hyun Babies' Home.



1922년 박애신이 만들어준 세라북



1935년 박애신, 李一학교졸업 가운데 줄 왼쪽부터 세번째



박애신(1958년)

- 미국 남장로교 선교박물관 소개내용 번역 -

대한민국 광주에서 젊은 나이에 홀로된 여인이 45명의 고아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박 선생은 광주에 있었던 장로교 선교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박애신은 로버트 맨튼과 베스 윌슨 (우월순) 선교사가족, (1921~1926)로버트 목사와 메이 녹스 가족 (1926~1940)의 침모였습니다. 피아노에 소질이 있었던 박 선생은 1944년 탁월한 성악가이며, 목포중학교 음악교사 김생옥과 결혼하였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순천공립여자중학교 음악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김생옥은 1948년 여순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난 후, 두 어린아이들과 남겨진 박 선생은 막막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요? 주님!"

1948년 선교사 가족은 박 선생에게 함께 미국에 가서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좋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광주의 길거리에 버려진 굶주리고 병든 아이들을 도우라고 답하셨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거의 모든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한국을 떠났습니다. 박 선생은 전쟁 전후에 계속해서 어린이들을 돌보셨습니다. 1952년 무렵엔 옛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와 인접한 곳에 충현원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1953년 7월 휴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 선교사들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55년 무렵에 이르자 그녀가 돌보던 아이들은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계에 부딪혔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그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처럼 키울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120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을 키워낼 수 있었을까요? 그녀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국전쟁 전후에 선교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정신으로 그녀에게 의약품, 치과치료, 자금, 음식, 옷 등등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미군 또한 음식, 옷, 약품, 자금 등을 지원해 주었고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엔 파티를 열어 주었으며 자주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웃음과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미군은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움과 사랑을 주는 훈련을 받지 않고도 버림받고 굶주려 병들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미국인들의 마음속에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는 기독교 윤리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미군은 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구해냈고 1954년 6월에는 429곳이 넘는 고아원에서 50,935명 고아들의 80퍼센트를 부양했습니다.

다음은 그녀를 도와주었던 여섯 선교사 가족들입니다. 로버트 윌슨 선교사 (우월순) & 베스 윌슨 여사, 허브 & 페이지 카딩턴 선교사 (고허번), 브루스 목사 (김아각) & 버지니아 커밍 (김에스터) 제중병원 간호원장, 로버트 목사 & 메이 녹스 여사, 플로렌스 루트 (유화례), 딕 & 루스 뉴스마 (유수만) 선교사 부부이며, 박 선생은 그들에게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웠습니다. 버지니아 커밍 (김에스터) 선교사는 "우린 항상 그 천사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더 발전하자 박 선생은 사회문제 예방 사업으로 아동상담소, 가출 청소년을 위한 보금자리, 어린이집, 무료 아동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박순이 선생은 회고했습니다. 한국 전쟁 고아들은....., 몸도 마음도 성치 않았어요. 저는 여자였고, 남편을 여의었으며, 연약했어요. 이 과업은 제 능력 밖의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지난 31년 동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24)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였고, 저 또한 많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박순이 선생은 1995년 2월 1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충현원은 그의 며느리인 유혜량 목사가 운영 중입니다.



■ 발자취

- 1949. 전쟁 전후 발생한 고아들을 위하여 「우일선(우월순) 선교사」 사택: 광주광역시 지정 기념물 제15호에서 충현원을 설립운영 (45명)
- 1951.10.01. 설립자 박순이 선생이 늘어난 고아들의 시설과 공간을 위하여 상당한 재산을 바쳐 광주시 양림동 210번지 (현 제중로 84, 86) 부지와 건물을 YWCA 김정현 회장으로부터 구입
- 1952.05.01. 현재의 장소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84 (양림동 210번지)로 이전
- 1953.07.01.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회 광주지구 선교사인 루트선교사의 알선으로 대한 기독교아동복지회에 가입 (CCF)
- 1954.05.01. 벽돌조 기와지붕 2층 아동 보육시설: 1층 95.04㎡ (28.27평) 및 2층 52.2㎡ (16평) 건물을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회 후원으로 신축
- 1956.07.01.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회 의료 선교사 의료 선교사 카딩턴이 충현원 수용 아동을 위해 매주 2회 회진 및 중환자는 기독교병원 (舊 제중병원)에 입원치료 받도록 알선
- 1957.11.26. 재단법인 광주 충현원으로 변경승인 (보허 제8호) 받음
- 1958.03.22. 전라남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득에 따라 충현원 의무실을 설치 후, 아동보건에 헌신적인 촉탁의사 여성숙 취임
- 1960.10.09. 생활관 87.45㎡ (26.5평) 벽돌건물 신축



- 1963.02.01.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광주 충현원 부속의원> 개설허가를 받음 (증보사의 No. 127)
- 1967. 도시계획 공원부지로 묶이게 된 시점부터 충현원 고유 목적사업 달성에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침
- 1972.12.28. 충현아동상담소 (전남 증 제1호) 및 충현어린이집 인가받음 (사업 목적 변경으로 문제아동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아동 상담소, 여성고학력에 따라 점진적으로 요구되는 취업 여성들의 육아를 돕고 교육을 돕기 위해 어린이집 개원)
- 1973.01.04. 미네소타주 루터란 선교회 (L.S.S.) 및 한화 아동 재단으로부터 1,440명 불우아동 결연사업(친척 집에 의탁된 소년소녀 가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비와 교육비를 고교 졸업 시까지 지원 시작)
- 1973.03.01. 충현영아일시보호소 (국내외 입양 및 미혼모 상담을 위한) 개설
- 1974.01.30. 전남 기아 일시 보호소 운영
- 1975.01.05. 한화아동재단 후원으로 거택보호 사업 추가지원개시 (소년소녀 가장돕기)
- 1975.06.19. 아동의 치료를 위한 외과, 소아과 의료기관 <광주 충현원 부속의원> 개설 허가 받음
- 1976.03.01.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로부터 무상 임대하여 충현원 과수원으로 사용하던 4,000여 평을 호남신학대학교로 내어줌
- 1976.03.22. 한화아동재단 (Netherlands Korea Children's Foundation)의 후원으로 비영리아동의원 개설
- 1976.08.15. 네델란드 아동재단 후원으로 어린이 공공놀이터 설치하여 광주시에 기증 (현 사직도서관, 영상문화원, 오방 최흥종기념관, 유진벨선교기념관, 양림미술관 자리)
- 1977.1.28.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하여 재단법인 광주충현원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광주충현원으로 명칭변경 (제327호)
- 1977. 국내 입양 위탁기관 지정
- 1979.11.09. 사회복지법인 광주 충현원을 사회복지법인 호남사회봉사회로 명칭 변경
- 1979.12.01.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호남사회봉사회로 명칭 변경 및 사업목적 추가에 관한 정관 변경 허가취득 후, 아동상담소, 사회봉사안내소, 일시보호소, 어린이집, 아동병원 등 5개 산하시설 운영
- 1981.01.01. 서구 양림동 210번지에서 호남종합사회복지관 개설 운영

- 1983.05.04. 치과 시범 진료 시작 (전남대학교 치과대학과 협정)
 - 1984.10.02. 호남종합사회복지관 신축개관
 - 1985.10.16. 호남종합사회복지관 시설 허가
 - 1987.01.04. 가출청소년 상담을 위해 광주역 앞에 사랑의 집 개설
 - 1990. 1973.01.04 시작한 불우아동 1,440명에게 결연사업 후원금 매년 지원
 - 1991. 불우아동 결연사업 명칭을 희망장학 사업으로 바꾸어 매년 856명씩 결연후원하였음
 - 1992.01.04. 호남재가복지센터 허가
 - 1996. 광주충현원 보육원 사업 폐지
 - 1996.08.22. 제중로 86번지에 충현어린이집 신축 허가
 - 1997.09.30. 충현어린이집 신축건물 사용승인
 - 1999. 희망장학 사업으로 매년 856명씩 결연후원 함
 - 2000. 희망장학 846명 결연사업 후원
 - 2001. 희망장학 958명 결연사업 후원
 - 2002. 희망장학 1,868명 결연사업 후원
 - 2003.09.01. 유.앤.아이 교회 세움 (UNI Church in New York)
 - 2003. 희망장학 193명 결연사업 후원
 - 2004. 희망장학 1,447명 결연사업 후원
 - 2005.05.05. 설립자 박순이에 대한 선교 보고서가 미국 남장로교의 박물관에서 발견됨
 - 2005.05.30. 미국 현충일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1950~1954년의 미군 병사들과 한국 아이들' 사진 전시회에 참가하여 미공군 군목 러셀 블레이즈텔 대령과 가족, 한국전쟁 참전용사 Dr.Drake 등을 만남
 - 2005.06. 미국 남장로교의 박물관과 한국 박물관을 방문하여 충현원의 자료를 찾음 (1949년부터 1955년)
 - 2005. 희망장학 919명 결연사업 후원
 - 2006.08.14. '1950~1954년의 미군 병사들과 한국 아이들' 사진 전시회 개최
 - 2006. 희망장학 1,190명 결연사업 후원
-

- 2007.10.27. 한국계간지 10주년 기념행사 (Tenth Anniversary, Korean Quarterly, Minneapolis, MN, U.S.A.) 참석
- 2007. 희망장학 1,479명 결연사업후원
- 2007.11.26. 사회복지법인 충현원으로 명칭 복원 아동전시관 및 체험관 운영사업과 아동 공동생활가정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변경승인 받음
- 2008.05.01. 『전란과 아이들』 -그 일천명의 아버지-』 군목 러셀 블레이크스텔의 1주기 추모 및 회고록 출판기념식 주최
- 2008. 희망장학 1,484명 결연사업 후원
- 2008.03. 전쟁고아시설 (충현원) 복원공사 용역사업비 교부결정
- 2009.12.17. 군목 러셀 블레이크스텔 대령의 동상 충현원 설치 및 제막식 개최
- 2009. 희망장학 606명 결연사업 후원
- 2009.05.16. 군목 블레이크스텔 2주기 기념행사로 한국 전쟁 전후에 충현원을 도와준 14명의 선교사들을 회상하고 감사하는 모임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몬트리트 소재 Presbyterian Heritage Center 주관으로 개최
- 2009.09.18. 충현원 (전쟁고아시설) 복원1차 공사 착수
- 2010. 희망장학 377명 결연사업 후원
- 2011.05.30. 한국 전쟁고아의 아버지 『1,000명의 아버지』 제2판 출간
- 2011.05. 멕시코 조각가 세바스찬이 제작한 '비운의 왕좌 (Throne of Nezahualcoyotl)' 도착
- 2011.08. 멕시코 조각가 세바스찬이 제작한 '라스팔로마스 (Las Palomas Chica)' 원본 도착
- 2011.11.09. 충현원 (전쟁고아시설) 복원2차 공사 착수
- 2011.12.31. 호남 종합 사회복지관 휴지
- 2011. 희망장학 252명 결연사업 후원
- 2012.03.30. 한국전쟁 고아시설 충현원 건물 복원식 및 멕시코 조각가 세바스찬이 제작한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50만 고아들을 추모하는 '비운의 왕좌 (Throne of Nezahualcoyotl)' 조형물과 해외입양 한인을 평화의 대사로 상징하는 '라스팔로마스 (Las Palomas Chica)' 제막식 주최
- 2012.03.31. 해외입양 한인으로 구성된 '장미무용단' 초청 공연

- 2012.04.01. 군목 러셀 블레이크델 대령 제 5주기 기념 추모예배
- 2012.12.20. 제62주년 한국전쟁 미공군 어린이 구출작전 기념식 및 제1회 미공군 군목 러셀 블레이크델 대령 회고록 『1,000명의 아버지』 독후감 공모 시상식 개최
- 2012. 희망장학 321명 결연사업 후원
- 2013.06.29. KBS 광주 '잊혀진 아이들' - 충현원 - 방영
- 2013.08.09. 호남종합사회복지관 재개하러 노력하였으나 관계관공서와의 여러가지 불협 화음으로 인하여 호남 종합 사회복지관 자진폐지 결정
- 2013.12.20. 제63주년 한국전쟁 미공군 어린이 구출작전 기념식 및 제2회 미공군 군목 러셀 블레이크델 대령 회고록 『1,000명의 아버지』 독후감 공모 시상식 개최
- 2013. 희망장학 300명 결연사업 후원
- 2014.01.01. 제중사회복지교양센터 사업 (사회복지)
- 2014.06.25. KBS '전쟁고아 구출작전 방영'
- 2014. 희망장학 300명 결연사업 후원
- 2015.05.01. 제 66주년 충현원 개원기념식 및 한국전쟁 고아의 아버지 美 공군 군목 러셀 블레이크델 대령 8주기 추모식 개최
- 2015. 희망장학 269명 결연사업 후원
- 2016.12.20. 한국 전쟁고아의 아버지 군목 러셀 블레이크델 대령의 한국전쟁고아 구출 성공 제66주년 기념식
- 2016. 희망장학 324명 결연사업 후원
- 2017.06.22. 한국 전쟁고아의 아버지 미 공군 군목 러셀 블레이크델 대령 10주기 추모식 및 기념 국제학술포럼 개최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
- 2017. 희망장학 336명 결연사업 후원
- 2018.03.03. 노인건강교실 노인일자리 상담 및 건강증진 도모
- 2018.12.20. 『한국 전쟁고아의 아버지 군목 러셀 블레이크델』 한글·영문 단행본 출판기념식
- 2018. 희망장학 375명 결연사업 후원

- 2019.02.15. 초창기 사회복지 인물사에 충현원 설립자 박순이 선생에 대한 유혜량의 논문이 수록됨 (한국 사회복지 역사학회)
- 2019.03.02. 노인건강교실 노인일자리 상담 및 건강증진 도모
- 2019.12.20. 한국 전쟁고아의 아버지 군목 러셀 블레이즈텔
한국전쟁고아 구출 성공 제69주년 기념식 (2019.12.20. COVID-19 발생
으로 비대면 기념식)
- 2019. 희망장학 338명 결연사업 후원
- 2020.01.02. 노인건강교실 노인일자리 상담 및 건강증진 도모
- 2020.04.22. 광주광역시로부터 기본재산 (서구 쌍촌동 887-5번지, 전 호남종합사회복지관)
처분허가 받음
- 2020.05.15. KBS 순천 스승의 날 특집 '김생옥 선생을 그리워하며' 방영
- 2020.07.01. 제중로 84지번은 도시계획에 따라 보전 녹지지구로 변경됨
- 2020.07.29. KBS 6.25 70주년 기념특집 'D 선상의 아리아' 비올리스트 리차드 용재 오닐과
충현원에서 촬영 후 방영
- 2020.12.19. CTS 6.25 전쟁 70주년 다큐멘터리 '전쟁 위의 천사들' 군목 블레이즈 대령의
장남 카터 블레이즈텔 인터뷰 'Operation Korean Kiddy Kar' 방영
- 2020.12.20. 한국 전쟁고아의 아버지 군목 러셀 블레이즈텔
한국 전쟁고아 구출 성공 제70주년 기념식을 비대면으로 함
- 2020. 희망장학 336명 결연사업 후원
- 2021.01.11. 목적사업에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운영사업,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을 추가함 이사 정원수 8명으로 정관변경
인가받음
- 2021.01.18. 노인건강교실 노인일자리 상담 및 건강증진 도모
- 2021.02.15. 노인여가복지사업으로 노인교실 지방보조 확정
- 2021.03. 한국 문화원연합회 월간지 '우리문화'에 박순이 설립자를 광주의 근현대
여성운동가로 선정

2. 양림동의 충현원

■ 광주 근대 역사문화의 보고(寶庫) 양림동

마을 이름인 양림은 버드나무가 많은 곳이라 양림(楊林)이라 했다고 전한다. 양림의 본래의 의미는 버드름에서 시작되었다. 버드름이란 산 능선이 밖으로 뻗어나간 것을 의미한다. 곧 [뺨다+으름 (접사)]로 구성된 말이다. 양림산에서 시작된 산 능선이 양파정 능선으로 이어져 광주천에 닿은 모습이 바로 버드름이다. 이 버드름을 한자말에서 취하였는데 버드는 [버드=버들=왕버드나무=楊]으로 표기하고 림은 발음이 비슷한 [림=림=林]을 취하여 양림이라 한 것이다. 양(~)이나 유(~)는 대개 지명에서 버드나무가 아닌 뺨어나간 산버들을 의미한다.

양림동(楊林洞)은 사직산과 양림산(楊林山) 높이 108미터로 이어지는 능선의 동남 사면에 자리 잡은 전통 주거지역이다. 1904년 미국 남장로교 유진벨 (배유지), 오웬 (오원) 등 선교사들이 들어와 교회와 수피아 여학교 및 그레함 (Graham) 제중병원(현 광주기독병원)을 개설되어 세칭 서양촌으로 불렸다. 동남쪽에서 북서쪽으로 곧장 흐르는 광주천의 남서쪽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광주천을 경계로 학동과 금동으로 구분된다. 동남쪽으로는 방림동 원방림 마을 및 샘터마을, 대남로와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 서편으로 백운 1동, 백운 2동과 인접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호남신학대학이 있는 양림산 정상에서 양파정이 있는 쪽으로 능선을 만들어 광주천변까지 가로막아 자연스럽게 사동과 구분된다. 극동은 학강초등학교 동편 585번 건물 동쪽 광주천 중간 부분이다. 극서는 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와 백운 2동 248번 건물과 경계지점이다. 극남은 명성 2길에 있는 34번 건물 남쪽으로 대남로와 접하고 있다. 극북은 양림 2길 입구 천변 좌로 건너편 광주천 중간 부분이다.

충현원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생명을 돌본 기관으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정신을 이어 받은 생명 존중의 태자리로 동방산실 모심향(東方産室 母心鄉)의 역할을 맡고 있다.



■ 충현원을 도와준 선교사들의 이야기

Presbyterian missionaries support Park Soon Ie to raise 45 orphans.

남편을 여의고 홀로된 박순이 선생이 돌보는 45명의 고아들을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도움.

With the assistance of Rev. John V. Moore, retired missionary to Korea, Rev. HaeRyang Yoo Kim, Executive Director of the Choong Hyun Babies' Home, Gwangju, Korea, discovered in June 2005 at the Presbyterian Historical Foundation, Montreat, North Carolina, that those who helped Mrs. Park Soon Ie to raise her 45 orphans on the Presbyterian mission compound in Gwangju were these six missionaries:



은퇴한 한국 선교사 존 V. 무어 목사의 도움으로 광주 충현원 원장인 유혜량 목사가 노스캐롤라이나주 몬트리트시에 있는 장로교 역사 재단에서 박순이 선생이 45명의 고아들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 6명의 선교사들을 찾아냈습니다.

Robert Manton Wilson, M.D. (missionary years 1905~1948), began to care for crippled orphans and lepers in 1909 in Gwangju. Mrs. Park Ae Sin, Park Soon Ie's mother, was a seamstress for the Wilson Family until 1926, when Dr. Wilson moved to develop a leper colony between Soonchun and Yosu, where the lepers found solace, faith in Jesus Christ, and a cure.



1905년부터 1948년까지 선교활동을 한 로버트 맨튼 윌슨 선교사 의학 박사(우월순)는 1909년 광주에서 장애 아동과 나병환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의 어머니 박애신씨는 1926년 윌슨박사가 나병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며 안정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찾을 수 있는 공동체를 지으려고 이사할 때 까지 윌슨 가족의 침모였습니다.

His house in Gwangju was the first home for Mrs. Park Soon Ie's 45 children from 1950~1955. He and his wife, Bess (Knox) Wilson, had seven children: Elizabeth, James, Mary Stuart, Robert, John, Edwin and Joseph.

광주에 있는 윌슨선교사의 집은 1950년부터 1955년까지 박순이 선생이 돌본 45명의 고아들의 첫 번째 보금자리였습니다. 그와 아내 베스 (녹스) 윌슨 여사는 엘리자베스, 제임스, 메리 스투어트, 로버트, 존, 에드윈, 그리고 조셉 이렇게 일곱 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Rev. Robert Knox (1906~1952), an evangelist, hired Park Soon le's mother, Mrs. Park Ae Sin, in 1926 to work with him, his wife, Maie (Borden) Knox, and their daughter, Betty Virginia. 로버트 녹스 (노라복)목사는 전도사였습니다. (1906~1952) 1926년 그는 그의 아내 메이 (보든) 녹스와 그의 딸 베티 버지니아를 도우라고 박순이 선생의 어머니 박애신씨를 채용했습니다.



Herbert Augustus Codington Jr. M.D. (1947~1974), came to Gwangju to cure those with tuberculosis. He directed the Gwangju Christian Hospital and is revered today for his compassionate care to any Korean in need. He came to Mrs. Park Soon le's Choong Hyun Babies' Home twice a week to provide medical care for her children: He and his wife, Mary Littlepage 'Page' (Lancaster) Codington had six children: Herbert, Julie, Mary Page, David, Lewis and Philip.

허버트 아우구스투스 카딩턴 주니어 선교사 (고허번) (1947~1974)는 결핵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광주에 왔습니다. 그는 기독교병원 원장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한국인들을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두 번, 어린이들의 진료를 위해 충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메리 리틀 페이지 "페이지" 카딩턴 여사는 허버트, 줄리, 메리 페이지, 데이비드, 루이스, 필립 이렇게 여섯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Rev. Bruce Cumming (1925~1958) was an evangelist, who planted churches and trained Korean pastors and laity. His wife, Virginia (Kerr) Cumming, R.N., was a hospital nurse and conducted village clinics. She wrote the story in 1953 of Mrs. Park Soon le's saving the lives of the street children in Gwangju and of her vow at their baptism to raise them as Christians. Her son was James Kerr, and their daughters are Virginia and Mary Bruce.

브루스 커밍 (김아각) 목사 (1925~1958)는 교회를 세우고 한국인 목사들과 평신도들을 교육한 전도사였습니다. 그의 아내 버지니아 커밍(김에스터)은 간호사였는데 마을 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1953년 박선생이 광주에서 버려진 아이들의 구호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기독교인으로 키우겠다는 맹세를 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그들 부부는 제임스 커라는 아들과 버지니아, 메리 브루스라는 두 딸을 낳았습니다.

Virginia wrote of Mrs. Park Soon le "She took care of those children throughout many a night. These children were never a problem for the missionaries in their work. We heard the laughter of angels all the time." She raised happy children. 버지니아 씨는 박순이 선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았어요. 선교사들은 절대 아이들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죠. 우린 항상 그 천사들의 웃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Florence Root (1925~1978) a 1914 graduate of Smith College, was an evangelist and educator, who rode horseback into the mountain villages to share the Gospel. She had been Principal of the Speer Girls' High School, Mrs. Park Soon le valued the older youth from Speer Girls' High School sent to her by Miss Root when she was the principal. She is esteemed for being the only missionary who refused to leave Korea during the Korean War. She was taken to the mountains and hidden by Christian friends for 76 days until UN forces re-secured Gwangju.



1914년 스미스대학 졸업생인 플로렌스 루트 (유화례) 여사 (1925~1978)는 교육자이자 전도사였습니다. 그녀는 산 중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말을 타고 달린 적도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수피아 여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박순이 선생은 루트 여사가 교장일 때 그녀에게 보내준 수피아 여학교의 학생들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루트 여사는 6.25 전쟁 때 한국을 떠나기를 거부한 유일한 선교사로써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독교인 친구가 유엔 연합군이 광주를 재점령할 때까지 산에 76일간 그녀를 숨겨주었습니다.

She and Virginia Cumming led the effort to raise funds for the first permanent residence for Choong Hyun Babies Home. She frequently visited with the children in their home, often with gifts and always with Bible stories to keep them enthralled. In retirement she led Bible studies beyond her 100th birthday.

루트 여사와 버지니아 커밍 여사는 충현원 발전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데 앞장섰습니다. 루트 여사는 종종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 충현원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매혹적인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그녀는 100번째 생일이 넘어서도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Dick Nieuwsma, D.D.S. (1930~2018) provided compassionate and diligent dental care to the orphans of Choong Hyun Babies Home. He and his wife, Ruth, have two children: Paul and Mary. Dr. and Mrs. Nieuwsma, now retired in Grand Rapids, Michigan. Dr. Dick Nieuwsma learned Korean from Park Soon le,



딕 뉴스마 (유수만) 치과의사(1963~1984)는 충현원의 고아들에게 친절하고 성실한 진료를 해주었습니다. 그와 그녀의 아내 루스는 폴과 마리 두 남매를 낳았습니다. 딕 뉴스마(유수만)은 박순이 선생으로부터 한글 말을 배웠습니다.

According to Dr. Detrick, the director of the former Ellen Levine Graham Hospital, or Graham Memorial Tuberculosis Hospital now often referred to as the Gwangju Christian Hospital, there were two nurses dedicated to care for the orphans. Astrid Kraakenes from the Norwegian and Miss Juanita Coyer appointed by the Southern Presbyterian Board of World Missions were much concerned for the little ones.

광주기독병원의 옛 이름 Ellen Levine Graham Memorial Hospital(그레함 기념병원)의 Dr. Herb Codington (고허번)원장 이후 1년 혹은 2년 뒤의 후임자인 Dr. Ron Dietrick(이철원)에게 온 이메일 (2009년 5월 2일)에 의하면 고아 아이들에게 매우 헌신적이었던 두 명의 선교사 즉 세계선교 남장로교에서 선발된 간호사 Astrid Kraakenes와 노르웨이 간호사 Miss Juanita Coyer는 고아들을 향한 보살핌은 다른 선교사들 보다 특별했다고 합니다.



Mrs. Park Soon le learned what to do as a Christian through the witness and influence of these six missionary families. She said in 1979, "I am doing this work in answer to God's call on my life, hoping to give these children hope and dreams until the last minute of my life." She fulfilled her words until 1995 when she changed her residency from earth to heaven.

박 선생은 이 여섯 선교사 가족들의 영향으로 기독교인으로써의 의무를 깨달았습니다. 1979년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일을 합니다. 제가 죽는 순간까지 이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박 선생께서는 1995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U.S. missionaries encouraged the people and leaders of Korea during the difficult 36 year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1910~1945), and after 1945 these missionaries continued to help lay a spiritual medical and educational foundation that has allowed Korea to become one of the leading nations of the world.

미국의 선교사들은 36년의 일제 점령 기간 동안 한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선교사들은 계속하여 영적, 의학적, 교육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도움 덕택에 한국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Korea is one of the strongest Christian nations in Asia today. Western medicine brought a cure for leprosy and tuberculosis. They introduced the idea of educating all

children – not just the aristocratic boys – of Korea, schools for girls and boys were begun in the 1890s. In Gwangju they were established in 1908.

폐허 이후 오늘날 한국은 강한 크리스찬 나라가 되었습니다. 서양 의료인의 도움으로 결핵과 나병의 치료제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서양인들은 양반의 아이들만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을 위한 학교들은 1890년대에 세워진 곳입니다. 광주에서는 1908년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Choong Hyun Babies' Home in Gwangju plans to create a museum to tell the story of the U.S. military and missionary compassion for orphans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Guest housing was constructed for Korean orphans from around the world to help them to be reconnected to their cultural roots.

광주 충현원은 미군과 선교사들이 6.25 전쟁의 고아들을 위해 베푼 사랑을 기념하는 박물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입양 한인들의 뿌리 찾기를 위한 체험관이 마련되었습니다.

Their wish is to have veterans and missionaries' families to kindly donate their precious artifacts from before,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Rev. HaeRyang Yoo Kim said, we would display them with care and remember the love of people who gave God's love of humanity for the next generation.

충현원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과 선교사 가족들이 6.25 전쟁 전후의 소중한 소장품들을 기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혜량 목사는 "우리는 그 소장품들을 소중히 전시할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분들을 사랑으로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 large percentage of the 200,000 Korean War orphans were adopted by American families after the 1953 Armistice. 500,000 Korean children died – from disease, malnutrition or aggression – during the Korean War.

6.25 전쟁 중에는 50만 명의 한국 어린이들이 질병, 기아, 폭력으로 인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1953년 휴전 협정 이후 20만 고아들의 대부분이 미국인에게 입양되었습니다.

The U.S. military throughout Korea saved the lives of over 10,000 orphans during the Korean War. Their financial support of food, clothing, blankets, medicines and school supplies were sustaining another 40,000 of the 50,936 children in 429 approved orphanages throughout the Republic of Korea in June 1954. Rev. Bruce Cumming was a chaplain to P.O.W.s during the Korean War.

한국 전역의 미군은 6.25 전쟁 중에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1954년 6월 무렵에는 전국 429개 고아원의 50,936명의 고아 중 4만 명의 음식, 옷, 담요, 약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브루스 커밍 목사는 6.25 전쟁 포로들의 목사였습니다.

■ 우월순 선교사와 충현원



*우월순 선교사 사택 (광주광역시 지정 기념물 제15호)

- 위치: 양림동 선교길 68 (호남신학대학교 도서관 옆)

제중병원장을 역임한 우월순 선교사는 당시 천벌로 여겨지던 한센병 환자들을 최홍중, 서서평 등과 함께 친 가족처럼 보살피며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여 주었다. 봉선리에 광주 진료소를 세워 한국의 한센병 치료에 큰 발자취를 남긴 그는 환자들이 전국에서 몰려와 넘치자 여수 울촌면에 애양원을 개척하여 평생을 의료사역에 바쳤다. 우월순 선교사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여 광주의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하도록 도왔으며, 수피아홀을 비롯한 주요 건물의 건축에도 기여하였다. 현재의 사택은 1910년 전후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1921년에 증축되었다. 그곳에서 젓먹이 전쟁고아들을 돌본 충현원과 관련이 깊다.

*충현원의 탄생

•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84 (양림동 210)

故 박순이 선생 (1921~1995)에 의하여 1949년 우월순 (Wilson) 선교사 사택에서 45명의 고아를 돌보는데서 출발한 충현원은 한국 전쟁 전후 수많은 젓먹이 전쟁고아들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현재의 충현원 건물은 1930~50년에 지어졌으며 당시 영아들의 건강을 위하여 채광과 통풍 등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던 흔적을 볼 수 있다. 충현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조지 F. 드레이크 박사와 한국전쟁 당시 부관 마이클 스트랭과 1,000여 명의 고아를 구출한 미국 장로교의 소속 블레이크텔 군목 등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로부터 자료들을 기증받아 6.25 전쟁고아들과 관련된 풍부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배고픔과 전쟁의 고통 속에서 생명들을 품은 지 70여 년이다. 반세기의 세월 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희망을 꿈꾸었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국내 현존하는 보육 시설 가운데 미국 선교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운영하는 영아원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양림동의 충현원이다. 1948년 여순사건과 1950년 6.25 전쟁으로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했다. 피폐화된 사회는 이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하루하루 끼니도 때우기 힘들었다. 당시 양림동에서 여순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한 여교사가 버려진 아이들을 제 자식 처럼 품었다. 충현원의 설립자故박순이 선생이다. 박 선생은 우월순 선교사와 녹스선교사와 동역하던 어머니 박애신씨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을 양림동의 선교사들과 함께 생활했다. 그녀는 선교사들의 한국말 선생이기도 하였다.

여순사건으로 남편을 잃자 철수하던 선교사들이 함께 미국으로 가서 생활하자는 권유에 사양하고 오히려 자신은 한국에 남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젓먹이 고아들을 돌보겠다고 비어 가는 우월순 선교사 사택을 빌려달라고 제안하였다. 점점 아이들의 수가 불어나자 시설과 공간이 부족, 그녀는 양림동 210번지 1,447평의 부지를 사재를 바쳐 구입한 후 거처를 새롭게 옮긴다. 1952년 백영흠 목사와 김상욱 한의사의 자문을 받아 더 많은 영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한 것이다. 이곳은 최초 사회문제인 전쟁고아를 돌본 복지시설에서 사회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교육장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영아원과 아이들 보호시설보다는 어린이집과 아동상담소, 무료 아동 병원 그리고 현재의 사직도서관, 영상문화원, 오방 최홍중기념관, 유진벨선교기념관, 양림미술관 자리에 어린이 공공놀이터를 세웠다.



1976년 무료아동병원 개소식



왼쪽부터 여성숙, 카딩턴부부, 박순이



그 후 호남종합사회복지관을 세워 사회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역할에 나선 것이다. 보호시설로 소년, 소녀 가장들을 수용하고 입양시켜 고국을 떠나보내는 대신, 기관에 수용하지 않고도 친인척 집에서 생활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후 이곳은 1967년부터 사직공원 부지로 묶이며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결국 1995년 2월 박순이 선생이 세상을 떠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방치됨에 따라 광주의 역사에서 간과되다시피 되었다. 하지만 故 박순이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미국에서 생활 중인 며느리 유혜량 목사가 한국으로 건너와 이곳을 맡게 되면서 2007년 11월 옛 이름인 충현원을 되찾게 된다. 이와 함께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역사체험과 사회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교육장으로 복원하는 승인을 관계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선교사(宣敎史)적으로도 사회복지 역사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는 충현원은 해외입양 한인과 그들 가족들의 방문할 때 옛 전쟁고아 시설 체험과 숙소 등으로 활용하고 한국전쟁 고아 관련 자료와 해외입양 관련 자료 전시관, 선교사회 복지 기념관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조지 F. 드레이크 (1930~2021) 박사가 기증한 6.25전쟁 관련 자료 2천여 점도 한국전쟁 고아 박물관을 마련, 전시할 계획이다. 충현원 유혜량 원목은 "충현원이 준공되면 현재 20만 명을 넘고 있는 해외입양 한인들이 고향과 고국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요람이 될 것"이라며 해외입양 한인 박물관도 함께 건립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외국민 750만 명 중 해외입양 한인이 20만 명인 상황에서 입양 한인들에게 그 당시 입양이 불가피했던 상황을 깊이 인식시키며 스스로 자아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라며 "충현원을 통해 그들의 과거를 회상하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긍지를 심어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 군목 러셀 로이드 블레이즈델 대령과 충현원

*군목 러셀 로이드 블레이즈델 대령 (1910~2007)

6·25 전쟁 초기, 서울에 남아있던 전쟁고아 1,000여 명을 기적적으로 제주도로 구출시킨 한국판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 군목 러셀 블레이즈델 대령은 군목 블레이즈델 대령은 1950년 7월 한국에 파병되었던 미 제5공군 사령부에 군목(중령)으로 배속됐다. 대구를 거쳐 서울에 올라온 그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을 보살피는 일을 시작했다. '서울 거리를 차로 지날 때마다 그 아이들을 보았다... 아이들은 병에 시달리고 해충으로 뒤덮여 있었다. 많은 아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회고록 중에서)'



그와 미군 장병, 자원봉사자들은 이 고아들을 데려다 먹이고 입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몰두했다. 하루에 50여 명 이상의 고아들을 사회복지시설로 데려간 날도 있었다. 그해 11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급변했다. 연합군이 급속도로 밀리면서 서울에선 제2의 피난민 행렬이 줄을 이었다. 블레이즈델 군목은 후방으로 떠나는 군부대 차량 등을 통해 고아들을 실어 보냈지만, 서울엔 여전히 1,074명의 고아들이 남아 있었다. 인천에 배가 있다는 말을 듣고 3일 동안 차 한 대로 낮과 밤을 안 가리며 실어 날랐지만 그 배는 바다에 뜨기 어려울 정도로 낡은 것이었다. 적군이 서울에 들이닥치기 직전인 12월 19일, 경황 중에 서울에서 통역을 맡았던 닥터 윤의 딸 엘리스와 헬렌을 서울에서 함께 데려오지 못한 것을 알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서울로 갔다. 그때 대구로 모두 철수한 미 공군 사령부에 작전 책임자 T.C. 로저스 대령을 기적적으로 만나 제주도로 고아들을 구출할 수 있는 C-54 군용 수송기 16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김포로 고아들을 데려올 수 있느냐는 로저스 대령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인천으로 서둘러 갔다. 그러나 아이들을 옮겨 실을 트럭이 없었다. 기도하며 인천 부두에서 밤을 새우며 방도를 구했다. 12월 20일 새벽 인천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미 해병대의 트럭을 발견하였다. 군목 블레이즈델은 해병대 트럭 14대를 동원해 고아들을 인천에서 김포공항으로 옮기는데 성공했다. 이 일로 블레이즈델 군목은 나중에 미 공군 군목회의 감찰관에게 조사를 받아야 했다.

블레이즈델 대령은 6·25 전쟁 중인 1950년 12월 20일 중국군이 남하하려고 할 때 미군 철수 명령을 무시한 채 한국전쟁 고아 1,000여 명을 살리기 위해 C-54 군용 수송기 16대에 극적으로 태워 제주도로 구출했다. 이후 서울은 폭격을 받아 쓸대밭이 됐지만 전쟁고아들은 제주도로 안전하게 피신하게 됐다. 블레이즈델 대령의 이 이야기는 딘 헤스 대령의 공로를 그린 영화로 만들어져 1957년 록 허드슨 주연의 영화 <전송가>라는 그의 공로를 가로챌 영화가 만



들어졌다. 군목 블레이즈델 대령은 2007년 초 자신의 회고록을 충현원 유혜량 목사에게 한국어로 출판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다. 4개월 뒤인 2007년 5월 1일 97세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숨졌다. 그러나 미국에서 그의 회고록이 아직 출간되지 않아 한국어와 영어 합본으로 한국에서 먼저 나오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어 판권을 받게 된 사회복지법인 충현원이 2008년 5월 1일, 러셀 목사의 추모 1주기를 맞아 추모식과 함께 그의 회고록 한국판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2008년 당시 유혜량 충현원 목사는 군목 블레이즈델 대령은 생전에 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먼저 회고록이 출판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면서 "군목님이 생존해 계실 때 이 책이 세상이 나오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유목

사가 해외로 입양된 고아들의 고향을 찾아주는 일을 통해 잊혀가는 충현원의 역사를 복원하는 노력을 하며 미국 남장로회 선교부를 통해 여기저기서 충현원의 과거 흔적을 찾아내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양림동의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전쟁의 어려운 시대를 살며 고아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충현원의 역사적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국전쟁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러셀 블레이즈델 (Russell Blaisdell) 군목과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또한 그의 소개로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조지 F. 드레이크 박사를 만나게 되었다. 군목 블레이즈델 대령의 회고록이 한국에서 출판되는 데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듯했다. 지난 2005년 광주 충현원 관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사진 전시회 '미군 병사들과 한국 아이들—그들의 사랑 이야기: 1950~1954년의 미군 병사와 한국 어린이들'에 참가했다가 군목 블레이즈델 대령의 아들을 만나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광복 직후 1990년대 중반까지 고아원이었던 충현원은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과거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고, 군목 블레이즈델 대령의 아들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알려달라"라며 손을 잡았다. 이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던 군목 블레이즈델 대령을 대신하여 장남 Carter Blaisdell 목사가 2017년 1월 현재 출판을 준비하고 있는 회고록을 충현원이 한국에서 출판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군목 블레이즈델

대령은 아무런 인연이 없는 충현원 유혜량 목사에게 책의 판권을 넘겼다. 한국 전쟁고아를 돌본 자신의 과거와 충현원이 생명존중의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점에서 회고록의 한글·영문판권 모두를 충현원에 맡기며 유 목사가 펼쳐지고 있는 해외입양 한인에 대한 뿌리 찾기 사업에 이익금을 써달라 부탁했다.

유혜량 목사는 "블레이즈델 대령은 라스베이거스에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입양 한인 20만 명의 뿌리를 찾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자신의 책을 써달라고 유언했다"라고 그의 입양 한인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설명했다. 고(故) 러셀 블레이즈델 대령을 기리는 동상은 2009년 12월 17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충현원 마당에 실물크기(190cm)로 건립되었다. 제막식은 당시 생명을 건진 고아들 대표와 제주도에서 다시 해외로 입양된 한인, 주한 미대사와 공군, 보훈처, 광주광역시, 광주 남구청 등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충현원 유혜량 목사는 "동상 건립 의미는, 아이들을 태어나게 한 부모도, 사회도, 정부도 모두 피난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미 공군 군목인 러셀 블레이즈델 대령이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1,07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안전하게 구출했다는 사건을 통해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하는 것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최우선 과제는 생명존중이라는 실천적 행동을 새기자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동상은 블레이즈델 대령이 한 여자아이를 안고 그 옆에 남자아이를 세운 형상이며 해외입양 한인들을 '평화의 대사'로 상징하는 '라스팔로마스' 조각과 신생아들의 황달을 치료한 충현원 건물을 바라보는 위치에 세워졌다. 동상이 충현원에 건립되는 것은 고인과 유족의 뜻이다. 충현원은 전쟁 속에서 버려진 젖먹이들을 돌보아 온 곳으로, 당시 건물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 지난 2007년 97세의 나이로 소천할 때까지 목사로 활동한 블레이즈델 대령은 1950년 7월 한국에 파병돼 있던 미 제5공군 사령부에 군목으로 배속되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 버려진 고아들을 보살피고다 11월 중공군 개입으로 전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1,074명의 고아를 피신시키기 위해 애쓰다 기적처럼 만난 미 공군 화물 수송기 편으로 아이들을 제주도로 피신시키는 데 성공했다.

블레이즈델 대령의 업적은 지금까지 딘 헤스 대령의 공로로 잘못 알려져 전해졌다. 딘 헤스는 제주도에서 파일럿을 양성하고 있었고 서울에서 제주도로 구출된 아이들을 마중 나와 제주농업고등학교로 안내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유 목사는 "1950년 12월 20일 C-54 미 공군 수송기 16대로 김포공항에서 제주도까지 고아를 옮긴 주인공은 딘 헤스 대령이 아닌 군목 블레이즈델 대령이라며 작전명 'Operation Korean Kiddie Kar(어린이 구출작전)'의 지휘는 물론 이 사건을 영화화한 <전송가>의 주인공이야말로 블레이즈델 대령이라고 강조했다. 윌리엄 코언 당시 미 국방장관과 헨리 셀턴 미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는 전쟁고아 구출작전에 대한 감사편지를 블레이즈델 군목에게 보냈었다. 유 목사는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블레이즈델 대령 같은 사람이 있었는지조차도 까맣게 잊고 있다"라며 "많은 소중한 생명을 구한 블레이즈델 대령의 동상은 마땅히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보존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 충현원의 역사적 가치

자신의 뿌리를 찾아 충현원을 방문하는 원생 출신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충현원의 역사를 정리하고, 보관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흩어진 자료들을 정리하게 되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한편, 다음 세대가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일하도록 하기 위해 잊혀가는 사실들을 찾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 충현원 유혜량 목사 -

* 2005년 5월, 호남신학대학교 차종순 총장으로부터, 브루스 커밍 (Bruce Cumming) 제중병원 간호원장이 1953년 충현원에 관해 미국 남장로회 선교부에 보낸 영문 선교 보고서를 전달받음: 고아들의 실태에 관한 내용과 박순이 선생이 45명의 고아들로 하여금 유아세례를 받게 한 후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서 기르겠다는 서약과 함께 우월순 (월순) 선교사 사택에서 충현원을 개설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다.

* 이 내용을 접한 후 미국의 한국 전쟁고아들에 관한 웹사이트 www.koreanchildren.org 에서 충현원에 관한 내용을 발견 (보육원명: kwangju Choong Hyun Babies' Home, 원장: Mrs Park Soon le, 주소: 210 Yangrim Dong, Kwangju Chulla Nam Do, Korea, 종교: Presbyterian, 원아수: 120명)

* 2005년 5월 30일, 미국 전몰장병 기념일 (Memorial Day)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이 사진 전시회에 충현원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金 洋 (설립자 아들)과 김요한(설립자의 큰 손자)이 참석했다. 그곳에서 한국 전쟁 참전 용사 미 공군 군목 러셀 블레이즈델 대령과 장남 내외와 한국전쟁고아를 추모하는 조각 공원의 코디네이터 드레이크 (Drake) 박사를 처음 만남.

그때 라스베이거스 호텔의 바로 맞은편 방에 투숙한 군목 블레이즈델 (Blaisdell) 대령: 1950년 12월 20일, 서울에서 1,074명의 고아들을 구조해서 제주도로 구출한 "Operation Korean Kiddie Kar"의 주인공인 러셀 (Russell L. Blaisdell) 군목의 아들 - 부부로 부터, 한국의 젊은이가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커밍스, 녹스 (Knox), 카딩턴 (Codington), 우월순(Wilson)등 선교사와 함께 사역한 박순이와 박애신의 선교 발자취를 찾으러 왔다고 대답하며, 그분들이 생존하지 않는다면 후손이라도 만나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군목 블레이즈델 대령은 자신의 거주지가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다가 그곳에 선교 박물관도 있어 기꺼이 도와줄 수 있다면서, 이번 행사 후 30일 동안 다른 바쁜 일정이 잡혀 있으니 그 후에 찾아오면 도와주겠노라 약속하였다.

*드레이크 박사가 벨링햄 시의 충현원과 비슷한 대지 위에 조성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기념탑과 정자 및 전시 공간 빅 락 가든 (Big Rock Garden Park)이 지금은 시민들에게 보물처럼 여겨진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벨링햄에서 가까운 시애틀에 거주하는 충현 가족 최반석 (최성식 목사 아들)의 안내로 빅락가든으로 향했다.

벨링햄 시청에 문의하니 드레이크 박사를 소개해 주어 우리는 그와 반갑게 재 회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벨링햄 방문을 통해 드레이크 박사의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임을 확인하였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유혜량과 김요한이 벨링햄을 다시 찾아가기로 계획하였다.

*2005년 6월, 자료를 찾아 나섰다. 군목 블레이즈텔 대령과 존 무어 (John V. Moore) 목사의 도움으로 미국 남장로회 선교 박물관에서 선교활동 보고 자료를 열람하였다 충현원이 월슨 선교사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사진자료들을 발견하였다.



충현원 원아들의 건강을 보살펴준 카딩턴 선교사 (Herbert A Codington, Jr)의 아들 데이비드 카딩턴 (David Codington)목사의 자택을 방문한 후 역대 선교사들이 묘역을 참배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드레이크 박사로부터 8월 초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그때 충현원을 방문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미국에서 드레이크 박사와 함께 벨링햄에 한국전 참전용사와 고아들을 기리는 기념관을 세우는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권오석 박사와 Breault (光 산업의 관계자) 선생이 광주를 방문하는 길에 입양아를 길러낸 양부모의 심정으로 충현원을 방문하여, 이곳에 고아들을 위한 기념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한국을 방문한 드레이크 박사는 제주도 조각 공원과 옛 고아원 자리를 다시 찾아본 후 광주에 와서 충현원 주변을 새벽마다 혼자서 돌며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예전 (1950년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의 공간이며 인류애의 문화적 가치가 무궁무진한 이곳이야말로 자신의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 빛을 보게 할 장소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충현원 주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는 사직공원 일각에 조각 공원을 조성해서 세계적인 조각가들의 교류의 장이 되도록 돕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광주광역시 정무부시장을 만나고 시장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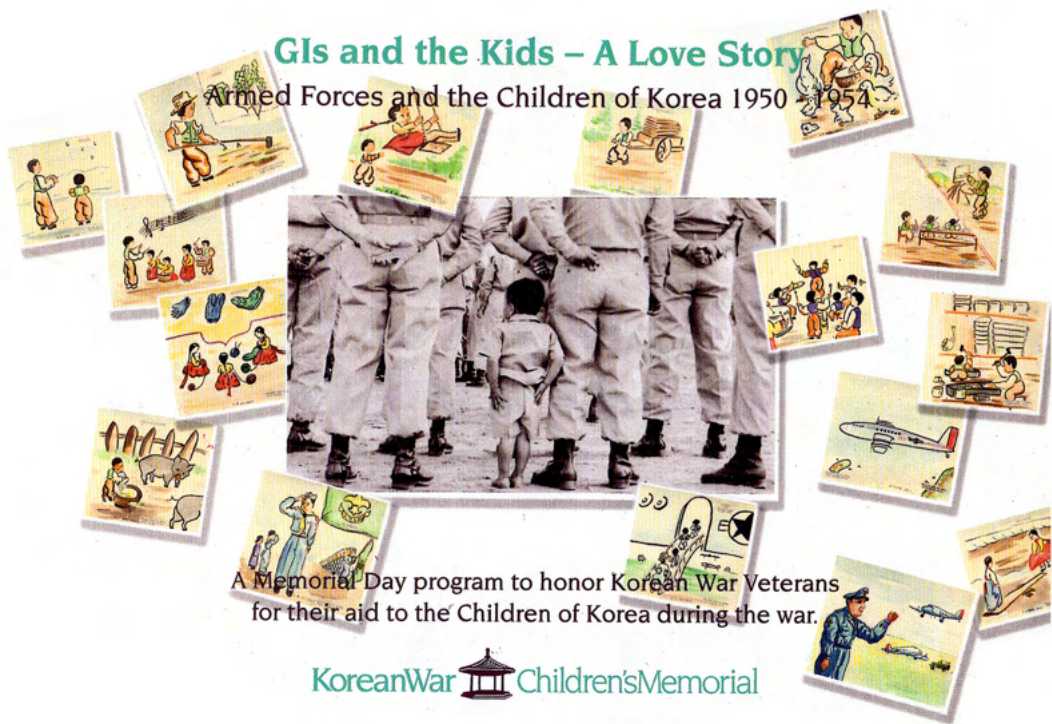
사진 전시회를 통해 한국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기원하는 한편, 특히 광주가 민주, 인권, 평화와 화합의 도시인 광주를 해외에 입양된 사람들이 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사진 자료와 충현원에 보관된 각종 자료들로 그들이 자아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울러 광주를 방문하는 입양 한인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자고 제안했으며 광주광역시 박광태시장도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한국 전쟁 기간에 한국의 고아들을 보살펴준 미국 장병들의 대표로서 그리고 고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준 은인으로서 드레이크 박사에게 명예시민권을 수여하기로 약속하였다.

*드레이크 박사는 2006년 6월 중순에 광주에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뜻을 전해 왔고 이에 충현원은 사회복지 협의회 및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사진 전시회를 2006년 8월 14~19일에 개최하였다. 그 후 드레이크 박사, 권오석 박사와 여러 차례 이메일 및 전화 통화를 거치면서 사진자료를 받았고, 사진 설명문의 번역 작업을 위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으며, 또한 수많은 광주광역시 시민의 도움에 힘입어 마침내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해외로 입양된 후 조국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이제부터는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인 광주가 품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그들도 장년이거나 노년을 바라보는 나이다. 그들이 광주를 방문하여 상처 많은 입양 한인으로서 입양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며, 전쟁 당시의 조국과 고향의 어려웠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게끔 도와야 한다. 친부모와 조국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혈육들에게 광주의 명예시민권을 수여하여 위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확인할 수 있는 문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쟁고아가 아닌, 가족해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에 입양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혈육들로 하여금 자신이 태어난 조국을 방문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앞으로 광주가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로서 더욱더 확실히 자리매김하는데 충현원은 미력하나마 일조하려 한다.

이 전시회의 사진자료는 광주광역시가 계획하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의 구성에 어울리는 문화콘텐츠의 하나가 되리라 믿는다. 더불어 선교와 사회복지 문화를 재창조하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



3. 충현원의 활동

■ 전쟁고아와 해외입양 한인

〈한국전쟁고아 돌봐온 美선교사들 추모〉

(광주=연합뉴스) 국내 현존 보육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광주 남구 양림동 충현원(忠賢院)이 역사교육과 전쟁고아를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충현원은 1949년 선교사 로버트 윌슨 (Robert M. Wilson)이 사택에서 40여 명의 아이들을 돌보던 것이 계기가 돼 1952년 고(故) 박순이 여사가 충현영아원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공원부지로 묶이면서 복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 광주시가 복원 공사 시작을 예고하면서 60만에 복원이 일부분 이루어졌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 6.25 전쟁을 전후로 한국에서 전쟁고아들을 돌보며 봉사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미국 선교사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산골 마을에서 열렸다. 미국 동부의 남북을 잇는 애팔래치아 산맥 끝자락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부의 산골마을 몬트리트시 주말인 16일 오전 몬트리트 대학 교회에서는 한국에서 고아들을 돌보며 젊음을 바쳤던 선교사 11명을 위한 추모 예배가 거행됐다. 미 장로교 헤리티지 센터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선교사들의 유족과 후손들은 물론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이희철 부총영사, 광주 양림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충현원(忠峴院)의 유혜량 목사 등 한미 양국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참석자들이 추모한 분들은 일제시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 전남,광주지역 및 충현원의 고아들을 돌보며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 대표적인 예로 1905년 조선에 파송돼 1948년까지 머물며 한센병 환자 요양소인 애양원을 세우고 1만명이 넘는 환자를 돌봤던 조선 한센병 환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윌슨과 부인 베스여사, 윌슨 박사 집안은 장녀인 엘리 베스 탈마지 할머니(98)를 비롯해 자녀 7명도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 평양외국인 학교를 졸업한 뒤 선교사로 활동하는 등 4세대가 모두 한국에서 선교 및 봉사활동을 했던 집안으로 유명

하다. 1906년부터 1952년까지 광주지역에서 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을 돌봐온 로버트 닉스 목사 내외 그리고 1947년부터 30여 년간 광주기독병원 원장 등을 지내며 결핵환자 치료에 앞장서는 한편으로 1주일에 두차례씩 충현원 고아들을 진료했던 허버트 아우구스투스 카딩턴 박사 내외도 포함됐다. 또 6.25 전쟁 당시 북한군 및 중공군 포로들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하면서 고아들을 돌보았던 브루스 커밍 목사, 6.25때 한국을 떠나기를 거부한 채 광주 수피아 여고 교장을 지내며, 충현원 고아들을 지원했던 플로렌스 루트 여사 그리고 1963년부터 20여 년간 고아들에게 치과 진료를 하며 봉사했던 딕 뉴스마 박사도 이날 추모의 대상이 된 주인공들, 충현원은 설립자인 고(故) 박순이씨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선교사 로버트 월슨의 사택에서 생활해 오다 1949년부터 당시 비어있던 사택에 40여 명의 아이를 돌보던 것이 계기가 돼 52년 '충현영아원'을 설립해 오늘에 이르게 됐고, 현재는 박씨의 며느리인 유혜량 목사가 운영하고 있다.

이날 추모행사가 성사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6.25 전쟁 당시 서울에 남아있던 전쟁고아 1,000여 명을 피신시킨 한국판 싘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인 고(故) 러셀 블레이즈텔 목사의 아들인 카터 목사(75)의 숨은 노력이 컸다. 블레이즈텔 목사는 1950년 7월 한국에 파병돼 있던 미 제5공군사령부에 군목으로 배속된 후 전쟁의 참화 속에서 버려진 고아들을 보살피오다 11월 중공군 개입으로 전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자 1,000여 명의 고아들을 피신시키기 위해 부심하다 기적처럼 만난 미공군 화물수송기 편으로 아이들을 제주도로 피신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미국에 온 한국 입양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돌봐오다가 한 참전용사로부터 충현원 건물이 남아 아이들을 키우기 힘든 처지에 놓였다는 사연을 접하고 2007년 5월 충현원 복원기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회고록 판권을 유목사에게 넘긴 채 세상을 떠났고, 그의 한국어판 회고록은 작년에 광주에서 출간됐다. 카터목사는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입양아들이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정신적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로 국내 현존 보육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충현원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충현원을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역사부터 조명하기 위해 추모행사를 마련한 것 카터 목사는 이날 "한국의 많은 입양아들이 고국을 찾더라도 과거의 상황을 파악하고, 문화적 충격을 해소하고, 정신적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친정역할을 해달라"고 충현원측에 당부했다. 유목사는 행사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아들을 위해 애쓰다 돌아가신 부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교사들의 헌신부터 챙긴 카터 목사를 보면서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을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유 목사는 충현원에 블레이즈텔 목사의 기념관과 전쟁고아를 돌봐온 미군 참전 용사 조지 F. 드레이크 박사가 기증할 6.25 전쟁 관련 전시관 그리고 해외입양 한인 등을 위한 만남의 장소를 설치하는 등 해외 입양인 및 전쟁고아들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고 보고해 박수를 받았다. 미 장로교 헤리티지센터는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국립

한국전박물관, 도서관으로부터 대여해온 사진들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장로교의 고아 지원'이란 주제로 사진전을 열기도 했다. 16~17일 양일간 센터에서 행사가 열린 몬트리트시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서 복음전파와 봉사활동을 하며 젊음을 바쳤던 미국 선교사들이 모여사는 블랙 마운틴시와 인접한 곳으로 미국 장로교의 선교사 교육 중심지이기도하다.



2008.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함께(New York)

유혜량 목사는 한국전쟁 당시 태어난 지 2주 되었던 아가로서 뉴욕에서 열리는 제58주년 한국전쟁 기념식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그의 가족들에게 감사의 연설을 통하여 기립박수를 받았다. 6.25 전쟁 당시 미군은 1만여 명의 한국 고아들의 생명을 구했고, 1954년 6월까지 전국 각지의 고아원에 있던 4만여 어린이에게 식료품과 의약품 등을 지원했다. 20여만 명의 전쟁고아 중 상당수는 휴전 이후 미국으로 입양됐다.

2007년 11월 입양인을 위한 신문 KOREAN QUARTERLY 보도팀이 충현원을 방문취재 보도내용

Babies' Home grows up

Pastor leads effort to convert orphanage to museum and adoptees' guest house



Editor Martha Vickery and special guest Rev. Hyeryang Yoo Kim of Gwangju, South Korea.



stories from our elders by
martha vickery

An orphanage that housed an estimated 6,000 children in Gwangju, South Korea, from 1949 to 1996 will be turned into a museum and a welcome center for visiting adoptees and their families. The proposal is joint plan by the orphanage founders and the city of Gwangju.

■ 해외입양 한인들과 뿌리찾기 활동(Searching for Birth Family)

2005년 5월 30일, 미국 전몰장병 기념일 (Memorial Day)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이 사진 전시회에 본원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충현원팀이 참석, 그곳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이고 미국 워싱턴주 벨링햄에 한국전쟁고아와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회장이며 현재 광주 명예시민인 Dr. George F. Drake와 한국 전쟁 속에서 1,000여 명의 고아를 구출한 Rusell Blaisdell 군목님과 가족들을 만남

* Dr. George F. Drake 사진 · 문서 기증 의사 통보 (2006.01.23)

– 광주광역시에서 전쟁 고아박물관, 도서관 자료 보관소 건립

* 광주 시청 시민홀에서 전쟁 고아 관련 사진 전시회 개최 (2006.08.14~08.19)

– 주제 : 미군병사들과 한국아이들 그들의 사랑이야기

* Dr. George F. Drake(남, 78세) 광주 명예시민증 수여 (2016.12.01)

* 미국 워싱턴주 벨링햄시 소재 광주광역시 박광태 시장 일행의 미주지역 투자유치활동 기간 (3.19~3.30) 기간에 미국 워싱턴주 벨링햄시 소재한 빅 락 가든(Big Rock Garden Park)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와 희생된 고아들을 기리는 조각의 헌화 참배함 (2007.03.24)

* 2007년 10월 27일 해외입양 한인 2만 명이 살고 있는 미국 미네소타주의 Korean Quarterly 1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광주광역시장의 축하 메시지를 대독하고 입양 한인들과 교류함.

* 러셀 블레이즈델 군목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 수송기 16대를 동원 1,000여명의 고아 들 제주도로 피신시킨 분)의 자서전 『Kids of the Korean War: Father of a Thousand 전란과 아이들 -그 일천 명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출판되고 나서 블레이즈델 군목의 업적이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알려진 잘못된 한국전쟁 역사가 58년 만에 그 진실이 밝혀짐. 또 러셀 블레이즈델 군목 동상이 2009년 12월 17일 충현원 뜰에 건립되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제일 우선 과제는 생명 존중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음.

* 뉴욕, 텍사스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로부터 한국전쟁 참전 당시의 자료를 제공받고 앞으로 계속 제공하기로 약속받음 (2008.06.25)

*스위스 (1,000명이 입양되어 있음)의 입양 한인들과 만남 (2008.08.15)



친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입양한인 내외와 함께



스위스 입양 한인들과의 만남

- * 2009년 5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904년부터 한국을 선교했던 397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의 모임에 초청받아 충현원을 도와준 선교사님들의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감사 연설하고 선교사님들의 자료를 받아오기로 약속
- * 2009년 5월 15~18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몬트리트에서 충현원을 도와준 13명의 선교사와 1908년부터 충현원의 설립자 어머니 박애신이 선교사님들과 동역했던 자료들을 입수하였고 충현원 설립 정신이 미국에 많이 알려져 한남대학교 설립자 John Somerville (서의필)박사 등이 감명을 받고 충현원을 방문하고 역사책에 다시 기록한다고 함.

[사업내용]

- 한국전쟁 당시부터 해외입양으로 재외 동포가 된 분들과 그 가족들의 모국방문을 추진
- 입양 당시 한국의 현실을 이해시키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귀국 후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국민들에게 외국 입양문화를 소개하여 입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도모
- 한국 전쟁 참전 용사와 한국전쟁 희생된 어린이들을 추모하는 계기 마련

뿌리찾기 활동 사진 (Searching for Birth Family)

네덜란드 (Netherlands)



천운선 · 광우 남매 입양직전



혈육을 찾은 후 첫 상봉



천운선(Veronika) · 천광우(Daniel) 가족들이 충현원방문

네덜란드 (Netherlands)



김봉옥 · 김춘실 남매입양직전



김봉옥 · 김춘실 남매 어린시절



김봉옥 혈육상봉

네덜란드 (Netherlands)



김영희 입양직전



네덜란드로 해외입양 된 지 35년 만에 한국인 된 김영희(Alice)가족



나란히 국적을 회복한 신승엽, 김영희씨 부부

덴마크 (Denmark)



박미경 입양직전



박미경(Malene) 어린시절



충현원에서 친혈육을 만남

독일 (Germany)



김영준 입양직전



김영준(Roman) 양부모와 충현원 방문

캐나다 (Canada)



문설희(Manuelle) 충현원 방문

미국 (United State of America)



김양수 · 양배 쌍둥이형제 입양직전



김양수(Scott) · 양배(Brad)형제 충현원 한국방문1



김양수(Scott) · 양배(Brad)형제 충현원 한국방문2

 미국 (United State of America)



황은민 어린시절



황은민(Elyse) 양어머니와 함께



양어머니, 친어머니와 함께

 미국 (United State of America)



최성진 어린시절



최성진(Suzy) 두 미국자매와 함께 충현원 방문



한복입은 Suzy

 미국 (United State of America)



이경호(3세) 어린시절



이경호(Adam) 친어머니 상봉



Adam과 Buster의 즐거운산책

 미국 (United State of America)



유성욱 입양지전



유성욱(Luca) 아내와 함께 충현원 방문



유성욱 한국가족 만남



미국 (United State of America)



김인수 입양직전



김인수(Martin) 충현원 방문 피아노연주



양아버지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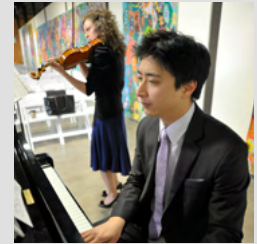
미국 (United State of America)



신관웅(Kevin)



신관웅(Kevin)과 유혜량 목사



아내와 함께 연주하는 모습



스위스 (Switzerland)



김지선 입양직전



남편(Marco) 아들(Luca) 김지선(Sylvie)



충현원 마당에서 전통혼례식을 올림



스위스 (Switzerland)




국상남 입양직전



국상남(Jean Marc) 양부모와 충현원 방문



김지선 가족과 우연히 만남

 스웨덴 (Sweden)




구미현 입양직전



구미현(Sara) 양부모 가족과 함께



최근 Sara(가운데) 모습

 영국 (England)




김종일(Marc) · 종이(Daniel) 쌍둥이 방문1



김종일(Marc) · 종이(Daniel) 쌍둥이 방문2



오준철(Yves) 양아버지가 조각 작품 선물함 (조각)

 프랑스 (France)



오준철 입양직전



오준철(Yves) 양부모와 함께 방문



오준철(Yves) 양아버지가 조각 작품 선물함 (책자)

그외 사진



하루에 세나라의 해외입양 한인이 가족과 함께 충현원 방문함(2009년9월8일)



해외입양 한인으로 구성된 장미무용단의 광주공연(2012년3월20일)

4. 충현원과 역사 문화 마을의 연관성

■ 충현원과 연관이 있는 양림동의 선교유적과 근대문화역사

광주 근대 역사 문화의 발상지이며 숨결이 고스란히 담긴 양림동은 단 하루 동안 둘러보기에는 벅찬 곳이다. 하루는 한국 전통문화를, 하루는 근대 서양 문화를 돌아보며 바쁜 일상이 치유되는 곳이다. 양림동 근대 문화 역사의 보고(寶庫)들을 깊이 탐방하다 보면 기독교 선교사들은 일제 강점기에 복음의 전파와 실천, 빈민 구제, 한센병, 결핵 치유 등 생명 존중 사랑의 공동체 실현, 호남의 교회 및 지역 인재 양성, 대대적인 광주 전남 농촌 살리기 운동등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한글 보급을 비롯한 각종 계몽 운동, 독립운동에서 5·18광주 민주화운동까지 일조하였다.



1. 선교기념비

사직 도서관 정문 옆에 위치한 선교기념비는 1904년 미국 남장로 교회 배유지 (Eugene Bell) 오기원 (Owen) 선교사 일행들이 목포에서 배를 타고 광주천까지 흘러들어와 이곳 양림동에 터를 잡았고 그해 12월 25일 오전 11시에 배유지 선교사의 임시 사택에서 지역민들과 첫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념하여 1982년 건립됐다. '서양촌'이라고 불린 이 지역민들의 호기심에 시작된 예배 참석이 바로 광주 근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2. 선교사묘역

현재 호남신학대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양림동산 일대는 원해 읍성 밖에 위치한 풍장 터였다. 선



교사들이 정착한 뒤 나무도 심고 길도 내고 사택, 교회, 학교, 병원을 지어 근대화의 씨를 뿌렸다. 100년이 지난 지금은 배유지 목사를 비롯한 22명의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국내 대표적인 선교사 묘역의 하나가 되었다.

3. 우월순 선교사 사택



의사였던 우월순 (Robert M. Wilson) 선교사가 1920년대 무렵 지은 이곳은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네덜란드 양식) 건축물로 자리 잡고 있다. 1908년 지

금의 기독교병원인 제중원의 원장을 역임하면서 나환자들을 돌보며 결핵 예방에 힘쓰는 등 의료 선교에 평생을 바쳤다. 특히 나병원을 개원하여 하늘이 내린 벌로 알려져 있던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양림동 뿐만 아니라 전남지역순회 의료진료를 하는 등 봉사와 희생, 생명 존중의 정신을 일깨웠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으로 철수하면서 박순이 선생께 함께 가서 살자고 제안했으나 박순이 선생은 오히려 누구도 돌볼 수 없었던 가난한 광주의 젓먹이 고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 건물을 빌려 달라고 하여 충현 영아원으로 이용했었다.

4. 호랑가시나무

우월순 선교사 사택 아래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수령이 400년이 넘는 호랑가시나무가 있다. 잎이 두껍고 광택이 있는 가죽질이며 잎가에는 다섯 개의 가시 모양 톱니가 있어서 호랑이가 등을 긁었다는 속설도 있다.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충현원 고아들이 크리스마스카드에 붙여 장식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이 양림 숲에는 구황식품으로 가져온 호두



나무, 피칸 호두가 있고 은 단풍 나무 같은 다양한 외국수종의 나무들이 있다. 우월순 선교사 장녀의 말에 의하면 선교부 안에 딸기밭을 만들어 간식으로 쓰기도 하였다고 한다.

5. 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 (벨 메모리얼 홀, 광주3·1만세운동 기념 동상, 수피아홀, 윈스브로우홀)

1908년 배유지 선교사가 임시 사택에서 여학생 3명을 가르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모금활동을 통해 수피아홀이 지어졌고 수피아여자학교로 이름도 바뀌었다. 1927년에는 지금의 수피아여자중학교 본관으로 사용 중인 윈스 브로우 홀이 건축된다. 별관과 강당 건물과 같이 이전의

회색 벽돌과 달리 붉은 벽돌을 사용하여 광주 근대건축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곳은 광주 전남 여성교육



의 요람이 되었고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와 휴교 등의 수난을 거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한 곳이다. 수피아 대강당 앞의 광주 3·1 만세운동 기념동상은 수피아여자중, 고등학교 동창회 주도로 1995년 건립되었다. 1921년 미국 남장로교 광주 선교부에 의해 건축된 커티스 메모리얼 홀은 1995년 호남 선교에 헌신했던 배우지 목사를 기리기 위해 선교사들의 회의를 거쳐 지금의 배우지 기념예배당으로 이름이 고쳐졌다.

6. Owen (오기원)기념각

배우지와 함께 전남 최초의 선교사였다 오기원 (Owen)과 그의 할아버지 윌리엄을 기념하기 위해 1914년 건립된 서양식 건물이다. 목사이자 의사



였던 오기원의 희생적인 삶에 이은 순교는 우리나라 한센병 구제 역사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현재 광주기독병원 간호전문대학에서 강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은 과거에는 주로 교회로 이용되었으며 크고 작은 문화행사의 장으로 활용되는 등 문화전당의 역할을 했다. 충현원의 설립자 박순이 선생의 피아노 반주로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7. 기독병원

1905년 제중원(濟衆院)이 설립되어 미국남장로교 의료 선교사 놀란 (J.W.Nolan)이 진료를 시작하면서 광주 근대의료이 시작되었다. 1908년 우월순 (R.M.Wilson) 선교사가 2대 원장에 취임하였다. 구라(救癩) 사업을 시작하여 1911년 광주군 효천면 봉선리에 광주 나병원을 설립, 1926년 당시 여천군 율촌면 신흥리에 우월순 나병원



(애양원)을 설립하여 이전하였다. 1930년 결핵진료를 시작하였으나 1940년 일제에 의해 병원이 폐쇄되었다가 1951년 재개원하여 이 땅의 결핵퇴치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희생, 나눔, 섬김의 본이 된 우월순, 서서평, 고허번, 여성숙, 허진득 선생 등 수많은 의료인들의 역사는 1980년 광주 민중항쟁 기간에도 이어져 헌신적인 치료와 그 후 잇따른 증언들에 의하여 5월 광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에 공헌하였다.

8. 양파정



조선말 양림리의 큰 부자이며 참봉을 역임한 온양 정씨 양파 정낙교가 고려 말기에 광주천의 강 가운데 건축되어 홍수를 다스린 석서정을 추억하며 일제강점기인 1914년 양림산 바위 언덕에 건축한 것으로 후에 광주군에 기증되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 골기와지붕인 양파정은 1932년에 중건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무등산의 능선들을 마주한 이 정자는 강물이 언덕을 휘감

아 돌며 물결을 일으키는 모습에서 갯버들 양(楊), 물결 파(波)를 취하여 양파정이라 하였다. 당시 향토 명인들의 시문 30여 점이 남아 이 정자의 명성을 전해주고 있다. 정낙교의 아들 정광호와 정상호는 애국청년들로서 광주 독립운동에 기여하였다. 충현원 아이들의 나들이 놀이터이기도 했다.

9. 양림동의 예술가들 (茶兄 김현승 詩碑와 시인의 마을, 정율성 가옥)

양림동은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걸출한 인재를 낳았다. '가을의 기도'라는 시는 고등학교 시절 널리 익혔던 詩다. 김현승 시인은 이곳 양림동에서 태어나 송일학교를 다니고 양림교회를 다녔다. 시비는 그가 근무하던 조선대학교 무등산 광주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양림동 산 능선에 세워져있다. 김현승 시인의 부인 장은순 선생과 충현원의 설립자 박순이 선생과는 같은 피아노 전공으로 친분이 있었다.



10. 최승효가옥 (광주광역시 지정 민속자료 제2호)

1920년에 지어진 이 집은 본디 양림리 최부자인 독립운동가 최상현의 집으로 정면 8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으로 된 규모가 큰 한옥이다. 무등산의 절경과 마주하는 양림산의 경사지를 자연 그대로 이용, 1퇴 공간의 반지하층을 구성하였다. 대청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소에 다락을 두고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을 피신시키는 장소로 사용했다고 한다. 외국 선교사들과 교류가 있었던 것 같다. 최상현은 독립운동자금 지원과 빈민 구제에도 힘썼다. 그가

독립운동가들을 위하여 구 시청 자리에 마련한 흥학관은 신간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들어서 있었고 광주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독립운동으로 가세가 기울면서 1968년 MBC 창립자 최승효씨가 인수해 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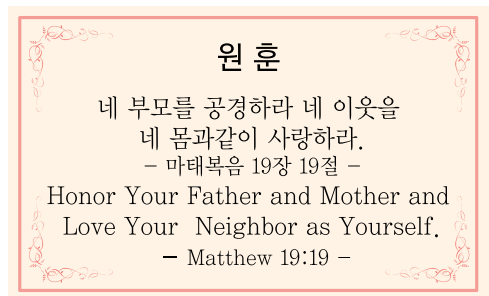
11. 최승남가옥

최승효가옥과 가까운 민속길 119에 최상현이 1920년에 2층 목조건물로 지었고 중국 상인들과의 교류의 장소였고, 연회장이었으며, 독립 운동가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 머무르기도 했다고 한다. 박순이 선생의 부친 박태삼(국가기록원에 의하면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독립운동가)이 대한민국 독립자금을 전하다 행방불명이 된 것을 증명하는 충현원의 설립자 박순이 선생의 태어 난 곳이기도 하다. 1966년도에 현대극장 극장 사장 최승남의 소유가 되었다.



12. 충현원

한국전쟁 이후 고아를 맡아 보호했던 충현원은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영아원 중 가장 오래됐다. 여순사건으로 성악가인 남편을 잃은 박순이 선생이 우월순 선교사 사택을 빌려 젓먹이 고아들을 위하여 충현 영아원을 설립했다. 고아들이 점점 늘어나자 시설과 공간이 부족하여 현재의 장소 제중로 84, 86 (양림동 210, 210-2) 번지로 이전하였다. 현재 호남신학대학 부지는 충현원의 과수원으로 26년간 사용되다가 1970년 말에 호남신학대학교로 넘겨주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나라가 발전함에 따라 고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회문제 예방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다. 젓먹이 고아들의 황달 치료와 건강을 위하여 남쪽 전면이 유리창문으로 되어 있어 채광과 통풍 등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70여 년 만에 노후되었던 충현원 건물들이 노유자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아 복원되었다. 충현원은 한국 전쟁고아와 해외입양 한인 관련 자료를 다량 보유하고 사회복지 역사박물관과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선교사회복지관의 역할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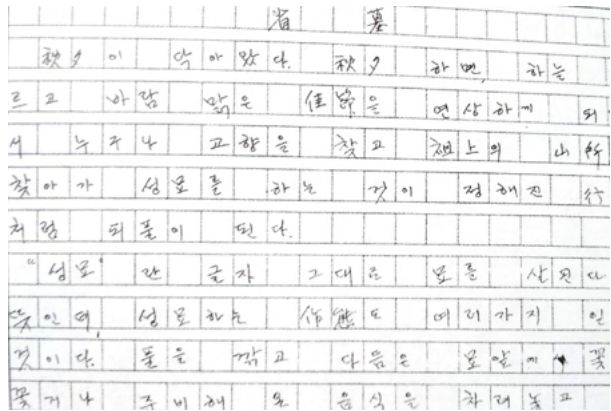


있다. 나아가 충현원은 박순이 선생이 추구하던 사회복지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준비되어있다.

그 밖에도 광주천, 사직공원 일대에서 일어났던 3.1만세 운동은 물론 광주 학생독립운동 등의 역사적인 장소가 양림동과 어우러져 있다. 역사 문화마을 양림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아시아의 문화와 더불어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



1994(74세) 박순이 선생 모습



박순이 선생 자필원고



5. 충현원의 미래적 전망

미국 남장로교회 소속 13명의 선교사들의 식품, 의류, 의약품 등 도움을 받은 충현원은 국내 현존 보육원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으며 전쟁고아의 참상을 알리는 사회 복지역사 체험과 고아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문제 예방 사업인 사회복지 교육의 장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광주광역시는 2008년부터 2011년에 걸쳐 사업비 13여억 원을 들여 한국 전쟁 고아 보육 시설인 충현원 건물 4동은 복원되었으며 2차 공사였던 2동은 준공을 기다리고 있다. 복원 후 2020년에야 광주광역시 남구청의 건축 허가 내용대로 노유자시설로 승인되었다. 이제 전 건물들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고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중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다. 제중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위한 활용 방안:

- * 전시관: 한국 전쟁고아 관련 충현원 소장 자료와 한국전 참전용사 Dr. Drake 관련 자료 등을 전시(국가등록문화재 등재 추진 중)
- * 생활관: 설립자 박순이 선생과 김생옥 선생 기념관(국가등록문화재 등재 추진 중)
- * 체험관: 해외입양 한인과 가족이 방문 시 어린시절 체험 및 숙소로 활용
- * 보육관: 영상 자료실, 명상실, 충현원의 설립 정신을 배우는 장소로 사용
- * 제중로 86에 있는 건물은 증개축하여 고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중종합사회복지관과 제중노인재가복지기관으로 활용
- * 한국참전용사인 미국 Dr. George F. Drake가 당시 전쟁고아 관련 사진과 관련자료 기증하였고 한국 전쟁 당시 사망한 50만이 넘는 어린이를 추모하는 장소로 지정하고 '비운의 왕좌' 조각과 해외입양 한인을 평화의 대사로 상징하는 '라스팔로마스' 조각은 멕시코의 세바스찬 작품으로 2012년 3월 30일 충현원 뜰에 설치됨.
- * 1948년 여순사건 이후부터 한국 최초 전쟁 고아 (신생아) 시설인 충현원에 해외입양 한인 모국방문사업을 추진하여 모국 사랑운동 전개
- *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도록 함
- * 입양 한인들이 한국 안내 관광코스의 첫 번째 장소로 사용될 경우 충현원을 방문하여 입양 당시의 국내현실을 이해하고 고향을 체험하는 계기 마련
- * 해외입양 한인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한국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
- * 외국의 일상화 입양문화를 국내에 홍보하여 국내 입양의 활성화
- * 위기가정의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로 삼아 가족해체 방지

- * 재외동포, 광주광역시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및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자원 확보
- * 광주근대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고향체험 테마여행 제공
- * 우리의 미래세대에 대한 전쟁의 참상과 해외입양사의 이해증진과 삶으로 생명존중의 역할을 실천한 설립자의 정신을 고취시킴.

특히, 한국전쟁의 참상을 통해 당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전시관 자료들을 통하여 고아 관련 사회복지의 현 모습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함.

어느덧 전쟁고아에서 노년층에 이른 해외입양 한인들과 지역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함.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지어진 신생아 황달치료를 하던 건물 변천



1950년대



충현원 아이들 발표회



1970년대



현재는 한국전쟁고아 관련 자료 전시관 건물로 활용

Sorrowful, Yet Always Rejoicing; Poor, Yet Making
Many Rich; Having Nothing, And Yet Possessing
Everything.

(2 Corinthians 6:10, NIV)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충현원(忠峴院)
생명사랑과 인권존중의 산실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충현원

책임발행인 | 유혜량

편집인 | 김윤희희진

발행일 | 2021년 6월 1일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84 (양림동 210)

Mobile | 010-9550-2214

E-mail | unichurch@naver.com

ISBN: 9788996661726 03330

※ 이 책의 저작권은 책임 발행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에 의해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후원 안내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얼마나 즐기는가가 행복을 좌우합니다. - 찰스 스펀전 -

| Share your love

It is not how much we have, but how much we enjoy, that makes happiness. - Charles Spurgeon -

후원계좌

예금주 : 충현원

- 광주은행: 138-107-003272
Bic code-KWABKRSE
- 국민은행: 556-01-0399-824
- 농협: 351-0111-1582-83
- 우리은행: 352-215675-01-101
- 후원금은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 5조 2항에 의해 연말 정산시 전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ponsorship account No.

Name: ChoongHyun Babies' Home Memorial Inc.

- Gwangju Bank: 138-107-003272
Bic code-KWABKRSE
- Kookmin Bank: 556-01-0399-824
- Nonghyup Bank: 351-0111-1582-83
- Woori Bank: 352-215675-01-101

「1,000명의 아버지」

「한국 전쟁고아의 아버지 러셀 블레이즈델」 권당: 15,000원

- 책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401-252308
- 예금주: 유엔아이교회

「Father of a Thousand」

「The Father of Korean War Orphans Russell Lloyd Blaisdell」

- Account(Book) No. - Woori Bank: 1005-401-252308(in Korea)
- Woori Bank: 0107005902 (USA) ABA No. 026007443
- Name: UNI Church

